

*Journal of Political Criticism* 5 (2009.11), 115-147

논문

##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미디어의 전략적 프레임링 사례 연구 - ‘과거’의 회상과 ‘리더-팔로어 관계’를 중심으로 -

차 동 욱\*

### I. 들어가며

현대사회에서 리더(leader)와 팔로어(follower)사이를 매개하는 기능의 중추적 역할은 언론에 의해 수행된다. 언론이 팔로어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팔로어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언론이 미치는 영향력이 차별적일 수 있다. 정치지도자들의 능력과 행위에 대한 팔로어의 평가는 팔로어들의 선호와 인식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는데, 그 팔로어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인식이 언론이 생산하고 확대하는 이미지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sup>1)</sup> 따라서 언론은 자신의 입장에 따라 전략적 프레임링을 하게 된다.<sup>2)</sup> 즉 언론의 이미지 창출은 특정의 의제를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도자의 능력과 행

---

\* 연세대학교

- 1) 이준용, “후보이미지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사회인지론적 설명,” 『한국언론학회보』 43권 2호. (1999).
- 2) 최영재, “이미지, 이슈, 정치적 관리, 민주주의,” 오태섭 외, 『현대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서울: 나남, 2006).

위를 평가함으로써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언론은 자신이 설정한 의제와의 일치 여부를 바탕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이미지를 창출하게 된다.<sup>3)</sup>

이 연구가 기존의 다른 연구들에 대한 심화 작업인 이유는 언론의 프레임이 전략적이라는 측면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재 한국사회의 언론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입장에 동의할 수 있도록 프레임링을 하지 않는다.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에서의 위치와 그 외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관적 프레임링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sup>4)</sup> 이러한 경향이 언론을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정치권력으로 부상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 정치의 핵심 요소인 정당은 포괄정당화 되며 그 정체성의 혼동이라는 문제를 갖게 되는데, 이때 언론이 선명성을 가지며 정당을 포함한 정치세력들을 견인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견인되지 않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동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한국 사회의 언론은 정치담론을 형성하고 정치적 논쟁을 야기하고 수행한다는 측면에서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정치 세력들의 주장이나 정책들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언론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전략적 프레임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실례를 분석할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의 언론은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의제를 제시하고 특정의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고자 하는 적극적인 비평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의제의 제시와 그 평가에 대해 언론 상호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가 이 연구의 주된 관심사항

---

3) Wyer, S. T. et al, "Image, issues, and ideology: The processing of information about political candid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1991), 533-545; 김현주, "대통령후보에 대한 이미지 형성과 커뮤니케이션," 『한국방송학보』 12호.(1999)

4) 차동욱, "대통령의 리더십 이미지 관리와 언론의 이슈 견인: 방법론 고찰," 『정치와 평론』 제4집(2009), 83-109.

이다. 대통령의 리더십 평가에 있어서 특히 ‘과거’에 대한 기억의 회생과 ‘리더와 팔로어의 관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질 것이다. ‘과거’에 대한 기억을 분석의 기준으로 사용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이다. 첫째, 현재 한국 정치의 지형이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대한 평가가 두 세력 간의 논란의 정점에서 서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과거’와의 비교를 통한 현재에 대한 평가가 사람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의 잔영을 강하게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리더와 팔로어의 관계’를 분석의 기준으로 사용한 이유는 각 언론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에서의 리더십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가 아닌 체제에서는 ‘리더’만이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에서는 ‘팔로어’가 더 중요하거나 최소한 동등하게 중요시 된다. 그렇다면 리더십에 대한 담론의 형성과 평가는 ‘팔로어’를 배제한 상태에서는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 이상의 두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의 언론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II. 데이터 수집의 기준과 과정 및 분류

### 1. 데이터 수집의 기준과 과정

이 글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한국 언론의 리더십 평가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초기 6개월간의 신문 사설을 분석함으로써 언론의 리더십 이미지 형성을 관찰해 보았다. 기간은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일(2007년 12월 20일)로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 약 6개월의 기간이 지난 후, 2008년 7월 1일 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이다. 앞의 6개월은 인수위 시절까지 포함된 대통령직 수행 준비기라 할 수 있다. 이 기간의 신문 사설들의 논지는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진 업무에 대한 평가 보다는 앞

으로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업무의 내용과 수행 방식에 대한 언론의 요구 사항들이 중심이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리더십 평가는 현실에 근거한 리더십 평가라기보다는 바람직한 리더십의 제안에 더욱 가까운 것이었다. 반면에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하는 2008년 7월 1일 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의 사실들에 나타나는 리더십 평가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초기 업무 수행에 대한 것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들은 현재 언론의 전략적 프레이밍 경향으로 볼 때, 임기 말까지 유사한 방향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2008년 7월 1일 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신문 사실들을 분석하되, 신문의 수를 조선, 중앙, 그리고 한겨레의 3개 신문으로 제한하였다. 조선일보를 보수성향 신문, 중앙일보를 보수지만 중도에 가까운 신문, 한겨레를 진보성향의 신문으로 구별하여 하나씩 분석한 것이다. 중앙일보를 중도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을 것이다. 오히려 서울신문이나 한국일보 등을 중도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신문이나 한국일보는 일반 대중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서 4대 신문(동아, 조선, 중앙, 그리고 한겨레)과 동가치를 부여하기 힘들다. 그리고 중앙일보가 정확히 중간의 입장을 견지해 온 것은 아니지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10년 기간 동안 보수의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보다는 중간 내지는 진보의 입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한 기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도로 위치시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3개 신문사의 사실을 통해 분석하였다. 신문사가 수행하는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형태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신문 사실은 사실상 신문사의 ‘공식적’ 입장이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보도·특집 기사나 외부 필진 칼럼 등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하겠다. 따라서 외부 인사들이 기고한 글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고, 신문사의 공식적 입장을 통해 분석의 객관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카인즈’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수집 과정에서 어떤 사실을 선택하여 분석할 것인가

가에 있어서,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6개월간의 모든 사실을 분석한 것은 아니고, 대통령의 리더십에 관한 평가에 있어서 ‘과거’에 대한 기억의 회생과 ‘리더와 팔로어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중심을 이루는 사실들만을 선정하였다. 사실 선정에 있어서 사용된 키워드는 ‘과거,’ ‘이명박,’ ‘대통령’(또는 정부, 단 정부를 키워드로 할 때는 반드시 ‘이명박’과 붙어 있을 때만 선정하였다), ‘리더십,’의 4개였다. ‘과거’에 대한 기억의 회생과 관련된 분석을 위해서는 ‘과거,’ ‘이명박,’ ‘대통령’(또는 정부)의 3개 단어 모두 들어있는 사실에 한정하였다. 그리고 ‘리더와 팔로어의 관계’와 관련된 분석을 위해서는 ‘이명박,’ ‘대통령’(또는 정부), ‘리더십’의 3개 단어 모두 들어있는 사실에 한정하였다.

‘과거’에 대한 기억의 회생과 ‘리더와 팔로어의 관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선정한 각 신문의 사실의 수자는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6개월(2008/07/01-2008/12/31)간 신문 당 선정된 사실의 수

	과거에 대한 기억	리더십과 팔로어십	계
조선	5	38	43
중앙	4	32	36
한겨레	10	38	48

## 2. 데이터의 분류와 기초 분석

<표 1>의 분류를 ‘과거’에 대한 기억의 회생과 ‘리더와 팔로어의 관계’에 대한 논의라는 두 기준에 따라 다시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과거’에 대한 기억의 회생과 관련하여, 각 신문이 ‘과거’의 회상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위해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부정적 평가를 위해 사용했는지

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3개 신문의 ‘과거’에 대한 기억의 회생 사용 이유에 따른 분류

	긍정적 기억		부정적 기억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
조선	1	0	2	2
중앙	1	0	0	3
한겨레	0	1	0	9

위의 표에서 말하는 긍정적 기억은 과거에 대해 해당 신문의 사실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들이다. 즉, 지금 현재에도 이어 받아야 할 좋은 선례(先例)인 것이다. 부정적 기억은 과거에 대해 해당 신문의 사실이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들이다. 즉, 반성해야 하고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선례인 것이다.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는 현재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이다. 긍정적 기억과 긍정적 평가가 결합된 경우는 좋은 선례를 들며 현재의 대통령이 잘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긍정적 기억과 부정적 평가가 결합된 경우는 좋은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통령이 그것을 무시하여 잘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부정적 기억과 긍정적 평가가 결합된 경우는 잘못된 선례를 현재의 대통령이 고쳐서 바로잡고 있다는 의미이다. 부정적 기억과 부정적 평가가 결합된 경우는 잘못된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한다.

위의 <표 2>에 대한 기초 분석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의 기억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의 비율을 보면, 조선일보는 긍정적 평가(3)가 부정적 평가(2)보다 많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상대적으로 호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가 1에 불과하다. 중앙일보는 부정적 평가(3)가 긍정적 평가(1)보다 많다. 여기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과거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가

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는 2개의 사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그러한 노력을 칭찬하고 있으나 중앙일보의 사설에서는 그러한 평가가 없었다. 따라서 중앙일보의 경우는 과거의 좋은 것을 잘 계수하고 있다고 칭찬하거나, 잘못된 과거로의 회귀를 경고하는 두 가지 입장만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한겨레신문의 경우는 위의 두 신문과는 또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긍정적 평가는 없고 10개의 관련사설 모두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10개 중 9개의 사설이 잘못된 과거로의 회귀를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1개의 사설은 그나마 과거에 잘 했던 것마저 잘못된 방향으로 돌려놓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과거에 잘 했던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망쳐 놓고 있다는 평가는 하지 않았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호감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조선일보가 가장 높고, 중앙일보가 중간, 그리고 한겨레신문이 가장 낮다. 그런데 수자로만 볼 때는, 보수와 진보 모두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과거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보수성향의 신문과 진보성향의 신문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분석은 뒤에서 사설의 구체적인 내용 분석을 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다.

다음의 <표 3>은 ‘리더십과 팔로어십’의 관계를 논하고 있는 사설들을 다시 세분한 것이다. 세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10개의 관련 사안을 선정하여 그에 따라 사설들을 분류하였다. ① 대통령의 무능력 또는 무책임 (국정운영과 국민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 평가) ② 리더십과 종교 ③ 대통령의 술선수범 ④ 인사 ⑤ 팔로어로서의 야당의 자세 ⑥ 야당 외의 팔로어의 자세 ⑦ 대통령에 대한 불신 ⑧ 대통령의 일관성 또는 추진력 ⑨ 실용외교의 허와 실 ⑩ 대통령과 미디어의 관계 등이다. 선정된 각 신문의 사설들은 이 10개의 사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다시 거론하겠지만, 이 연구를 진행하며 실망스러웠던 것은 보수이건 진보이건 팔로어십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현대의 민주 사회에서는 리더십의 평가는 팔로어십과 관련하여서만 적절히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진데, 한국의 신문들은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리더십의 평가를 오직 리더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동반자형(fellow)나 서번트형(servant) 보다는 카리스마형 리더가 지배적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5)</sup>

<표 3> 3개 신문의 '리더십과 팔로어십'의 관계를 논하는 사설들의 분류

	조선	중앙	한겨레
대통령의 무능력과 무책임 (국정운영과 국민통합 관련)	6	6	12
리더십과 종교	6	2	3
대통령의 술선수법	2	1	0
인사	6	4	7
야당의 팔로어십	4	3	0
야당외의 팔로어의 자세	1	2	2
대통령에 대한 불신	7	5	7
대통령의 일관성 또는 추진력	2	7	1
실용외교의 허와 실	2	1	1
대통령과 미디어의 관계	2	1	5

위의 <표 3>에 대한 기초 분석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미 언급했듯

5) 리더십의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들을 참조할 것. 최 진, 『대통령리더십 연구』(서울: 법문사, 2007); 함성득, “대통령 리더십 외국 사례와 바람직한 한국 대통령 리더십 모색: 정치적 다수와 대통령을 찾아서,” 한국정치학회·관훈클럽 편, 『한국의 대통령 리더십과 국가발전』(서울: 인간사랑, 2007); 말린 캐로셀리, 조경순 역, 『리더십의 기술』(지식공작소, 2004);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조중빈 역,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지식의 날개, 2006).



이 3개 신문 모두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팔로어십과 연결시켜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안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논한 경우는 ‘팔로어로서의 야당의 자세,’ ‘야당 외의 팔로어의 자세’로 분류될 수 있는 12개(조선 5개, 중앙 5개, 한겨레 2개) 뿐이고, 이는 총 분석 사설 수(127개)의 9%에 불과하다. 한국 사회가 아직도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리더십의 전형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진보성향의 신문이라 할 수 있는 한겨레신문이 팔로어십에 대한 논의를 보수 성향의 신문들 보다 더 적게 하고 있는 상황은 흥미롭다. 물론 수자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한겨레신문은 리더와 동등한 팔로어를 당연히 여겨 특별히 언급은 하지 않되 대통령의 리더십이 잘못되고 있음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음에 반하여,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팔로어십에 대해 논하되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복종하는 것을 바람직한 팔로어십으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다른 특징들을 보면, 먼저 ‘대통령의 무능력 또는 무책임’과 관련하여 한겨레신문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사설들을 싣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진보성향의 신문이자 일종의 야당지로서 반대자의 입장에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현상은 아니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한겨레신문의 관련 사설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소통 부재에 의한 일방적 국정운영을 함으로써 국민통합에 실패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 물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도 이명박 대통령의 소통부족과 그 결과로서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 중 보수 성향이던 진보 성향이던 불문하고 집중포화를 퍼붓는 사안이 ‘종교편향성’이다.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는 그 비판의 강도나 빈도수에 있어서 다른 신문들의 두 배에 가깝다.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분석하겠지만, 조선일보의 입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쓸데없

는 곳에서 문제를 일으켜 보수 정권 자체를 뒤흔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종교편향성이 정치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 자체를 난센스라고 보고, 그러한 논란이 일어난 것 자체가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흠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종교편향성’ 만큼이나 모든 신문이 유사한 입장에서 비판을 한 사안이 ‘인사’ 문제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는 보수와 진보 양 진영으로부터 비판받아왔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가 지나칠 정도로 ‘엽관제’의 성격을 강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도덕성 잣대를 들이대기도 전에 그 전문성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심각하게 이루어졌다. 임명된 이들의 이념성이나 정책지향성은 논란이 될 기회조차 없었다. 인사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었고,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당연하면서도 다시 본격적으로 재조명해야 할 사안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리더십’과 ‘인사’의 관계이다.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리더 개인의 자질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리더의 ‘리더십’은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 III. ‘과거’에 대한 기억의 희생과 관련된 3개 신문 사설의 내용 분석

앞의 기초 분석 단계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과거에 대한 기억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호감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조선일보가 가장 높고, 중앙일보가 중간, 그리고 한겨레신문이 가장 낮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 모두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수자로만 보면 ‘과거’의 기억에 대한 희생이라는 측면에서 3개 신문사는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관련 사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과거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보수성향의 신문과 진보성향의 신문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문별로 사설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 1. 조선일보

‘과거’의 기억과 관련된 조선일보의 사설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과거 한국 사회의 리더와 미래를 위한 한국 사회의 리더를 동일한 그룹으로 보면서,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낸 8월 28일자 사설이었다. “산업화 세력의 주도 필요”라는 제목의 이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대한민국의 30년은 산업화 세력이 이끌었고 다시 그 후 10년은 민주화 세력이 주도”했으나, “민주화 세력”이 주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회를 유지하던 제도들이 “서로 뒤엎겨 버린” 과오를 범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다시 산업화가 선진화를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시장친화적 경제 운영은 산업화 세력이 다시 주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측면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뒤에서 살펴 볼 ‘리더십과 팔로어십’의 관계와 관련하여 선정된 사설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듯이, 이명박 대통령이 선진화로의 방향을 잡고 그 주도 세력으로서 산업화 세력을 복권시켰지만, 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리더십의 흠결(대표적인 것이 ‘인사’와 ‘종교편향성’)이 선진화의 장애사유로 기능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과거’의 기억과 관련해서는, 한편으로는 보수 정치 세력의 권력탈환을 군사독재로 비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경계하면서(7월3일자 사설 “이명박을 군사독재라?”), 다른 한편으로는 10월 24일자 사설인 “KBS 문제 놓고 ‘80년대식’ 관계기관대책회의 열었나”에서나, 또한 12월 8일자 사설인 “현대사 교육은 좌(左)·우(右) 어떤 편향도 없어야”에서는 권위주의 시절의 관행이나 아니면 권위주의 시절을 미화하려는 현 정부 부처들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권위주의에 대한 향수를 일으키려는 정부 부처의 행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강력히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는 조선일보가 요구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과거의

권위주의 권력자들의 리더십과는 어느 정도 차별성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탄생은 이명박 대통령 개인의 정부의 탄생이 아니라 보수 세력의 복권임을 조선일보는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탄생과정에서 보수 언론, 특히 조선일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소통이 필요하다고 하여 진보 세력에게 귀를 기울이고 보수 정책을 추진하는데 머뭇거리는 것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강력히 반대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보수 언론을 비롯한 보수 세력과는 상호 이해관계를 보장해 주는 거래적 리더십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세력과는 치열하게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모든 상황에서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포기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2.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과거’의 기억의 회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이것이 중앙일보를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에서 중도에 위치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9월 19일자 사설인 “전두환 정권까지 감싸려는 국방부”에서는 국방부가 전두환 정부를 미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철저히 경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위들을 단속하지 못 할 경우 진보진영에서 주장하는 ‘권위주의로의 회귀,’ ‘독재로의 회귀’를 입증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중앙일보가 ‘과거’에 대한 기억의 회상을 통해 주장하는 것은 특정의 이념성이나 정책지향성은 아니다. 오히려 특정 이념에 따른 카리스마적 국정운영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월 22일자 사설인 “경기도 지사의 입을 막지 말라”에서는 김문수 지사가 청와대와 여당, 및 정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정치적 압력을 가하려 하자 그러한 시도에 대해 경고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청와대와 여당에 종속시키려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에나 가능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즉 권력 집중에 의한 국정운영은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약화시킬 것이라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뒤에서 살펴 볼 ‘리더십과 팔로어십’의 관계와 관련하여 선정된 사실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듯이, 중앙일보는 권력 집중에 반대하며 권력 분산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권력 분산이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권력 분산을 만들어 내고, 그렇게 분산된 권력이라는 조건하에서 국정운영을 원활히 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권력분산은 균형을 전제로 하여 진보세력과도 권력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보수 세력 내에서의 권력 분산이다. 이 점에서 중앙일보를 보수와 진보의 중간으로서의 중도로 볼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보수 쪽으로 기울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실의 논지들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일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 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주장한다. 일단 특정 이념을 앞세우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적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조선일보와는 차별성을 인정할 수 있다.

### 3. 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은 ‘과거’ 기억의 회상과 관련된 사실 10개 중 9개에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과거로의 회귀를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명박 정부의 리더십은 과거 권위주의 권력자들이 사용하던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다를 바 없다고 규정짓는다. 그 9개 사실을 사안별로 분류하면 <표 4>와 같다.

<표 4> 한겨레신문의 ‘과거’ 기억의 회상과 관련된 사설에 대한 관련 사안  
별 분류

사안	사설 제목	날자
경찰권 행사	“어청수 경찰청장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	7월 1일
	“스님·목사·신부까지 잡아가두겠다는 것인가”	7월 7일
언론 장악	“표현의 자유 제약하는 인터넷 재갈 물리기”	7월 22일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은 원천 무효다”	8월 8일
	“이명박 정부가 되새겨야 할 동아투위의 교훈”	10월 29일
	“모든 책임은 언론장악 야욕에 있다”	12월 25일
역사재인식	“‘건국’이 아니라 ‘정부수립’이 옳다”	8월 4일
	“정부수립 60년, 퇴행을 선택한 이명박 정부”	8월 14일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정체성 확립인가”	12월 23일

관련 사안들은 다르지만, 9개의 사설 모두에서 한겨레신문은 “시곱바늘이 꼭 20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하다,” “유신정권 때나 5공 신군부가 그렇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그런 시대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다,” “군사정권 시절의 처벌 만능주의 유산을 떠올리게 한다,” “거짓된 영웅신화와 반공 국시의 복권을 통해, 다시금 반민주적 억압과 신자유주의의 착취 구조를 부활하려는 것이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의 내용은 사실상 독재 통치임을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한겨레신문의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프레이밍은 일면 사실관계와 부합하여 설득력을 갖지만, 한겨레신문이 심각하게 간과하고 있는 것은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타당한 리더십이 무엇인가에 대한 제안의 필요성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이 사실상 독재 통치인 것만을 반복하여 강조하면, ‘리더십 = 독재’라는 항등식이 성립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리더가 없는 사회만이 민주 사회라는 말이 된다. 이 말이 타당하지 않음은 새삼스럽게 증

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겨레신문의 프레임링에 대해 진보세력까지도 진부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IV. ‘리더십과 팔로어십’의 관계와 관련된 3개 신문 사설의 내용 분석

##### 1. 대통령의 무능력 또는 무책임 - 국정운영과 국민통합과 관련하여

이 사안과 관련하여 선정된 사설들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논지로 일관되어 있다. 단, 그 초점을 신문마다 달리 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특정 유형의 사안과 결합시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능력을 문제시하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미숙함을 비판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의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의 무능력 보다는 무책임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처음부터 편 가르기로 시작하여 그 편향성이 더욱 심해져 국가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사설의 논지의 핵심이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 이명박 대통령의 개인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는 달리, 중앙일보의 경우는 개인 리더십 보다는 시스템의 개선 내지는 개편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 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직접 개입을 자제하고 시스템이 움직이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경우를 자세히 보면, 7월 11일자 사설인 “국민이 북(北) 총 맞아 숨진 날 북(北)에 손 내민 대통령”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상식’과 ‘ABC’와 ‘기본’을 모르고 있다”고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한 “정권의 공약은 시작도 제대로 하기 전에 용두사미(8월 15일자)”가 되었다든지, “대운하와 같이 국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책을 제때 맺고 끊지 못해 나라를 공연한 소동 속으로 몰아넣은 책임(8월 24일자)”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방식으로 이명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능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의 경우는 선정된 12개 중 9개의 사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과도한 편향성을 비판하고 있다. “기념일도 대통령 멋대로 바꾸나(7월 20일자),” “애국지사 앞에서 낮 들기 부끄럽다(7월 24일자),” “차라리 ‘국민 통합’ 명분이나 내세우지 말지(8월 12일자),” “광복절을 찢어놓은 이명박 정부(8월 15일자),” “나라가 분열돼도 ‘내 편’만 챙기는 대통령(8월 29일자),” “국민과 인식 격차만 보여준 ‘대통령과의 대화’(9월 10일자),” “교과서 왜곡, 왜 이렇게 밀어붙이나 했더니(11월 30일자),” “사그라진 기대, 대통령은 ‘유권자 뜻’ 되새겨봐야(12월 18일자),”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12월 31일자)” 등의 사설에서, “국가 운영은 회사 운영과 다르다. 대통령이라고 멋대로 결정하고 밀어붙여선 안 된다,”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보수 국가, 우익 국가’로 규정하려는 과도한 이념적 집착이 깔려 있다,” “자기 사람들만 챙기고 보듬어서 내 갈 길을 가는 건 가장 쉬운 방법이긴 하다. 그러나 그건 착각일 뿐이고, 대통령이 그럴수록 나라는 분열되고 국민은 갈라진다,” “이 대통령은 민주적 리더십이 없으면 경제 살리기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이명박 대통령이 한 쪽으로만 편향되어 국민통합이라는 과제를 외면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앙일보의 경우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조선일보나 한겨레신문과는 어느 정도 차별성을 가지고 논지를 펴고 있다. 선정된 6개 중 3개의 사설은 경제위기에 대한 글이었는데, 일단은 11월 26일자 사설인 “대통령의 말, 보다 진중해야”에서와 같이 대통령이 경제 상황에 대해 직접 논평하고 예측하는 것에 대해 자제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조선일보나 한겨레신문의 경우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에 대한 사설들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경솔함과 더 나아가서는 무능력을 비판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중앙일보의 경우는 11월 13일자 사설인 “대통령이 나서도 왜 돈이 안 도는가”에서처럼 “직접 개입하기보다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리더십의 평가에 있어서, 개



인의 자질 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시스템이라는 환경 속에서의 리더십, 더 나아가 시스템을 만들고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리더십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2. 리더십과 종교

2008년 여름에 일어난 불교계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촉발된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편향성’ 논란과 관련하여 3개 신문 모두 이명박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개인의 자질 문제보다는 시스템의 관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려는 경향을 보이던 중앙일보도 이 논란에 있어서는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 해결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의 사태는 기독교 장로 신분인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8월 13일자),”고 지적했으며, “오해를 부를 만한 사태가 계속될 때 공직자들의 종교편향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하겠다는 명확한 지침을 내렸어야 했다(8월 27일)”고 하며 사태의 원인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의 경우는 중앙일보와는 약간 입장을 달리한다. 중앙일보는 문제의 발단이 이명박 대통령임은 인정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편향성 문제는 사건의 배경일 뿐이고, 사건의 직접적 원인은 관련 공직자들의 종교편향적 행위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원인은 아니지만 국민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이 중앙일보의 논지이다. 반면에 한겨레신문은 이 사태의 직접원인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주장한다. 관련 공직자들의 종교편향적 행위는 단지 파생된 결과물의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대통령 이명박이 아니라, 개신교 장로 이명박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종교 편향 현상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7월 4일자),” “대통령이 이런 태도를 보이자, 공직사회는 알아서 기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애꿎은 공직자만 나무랐다(8월 26일자),” “종교 편향 논란의 근본 원인을 제시하는 데서부터 이 대통령은 솔직하지 못했다. 그는 ‘일부 공직자의 언행’을 문제의 시발점으로 지적했지만, 종교 편향 논란이 이렇게 커진 덴 이 대통령 자신의 언행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게 많은 국민의 시각이다(9월 9일자)” 등의 논조에서 한겨레신문의 차별적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일보의 경우는 한겨레신문과는 달리 사건의 직접원인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지목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일보의 입장과 유사하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도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다. 그러나 그 시절에는 종교로 인한 불협화음의 기억이 없다. 왜 이명박 정권에서만 종교 편향이 끊임없이 문제되고 있는가(8월 10일자)”라고 한 논조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원인제공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우고 있다. 즉 중앙일보와는 달리 단지 관리 감독 소홀 때문에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 유감 표명 이후, 불교계의 적극 수용을 종용하고 있는 면에서는 중앙일보와는 맥을 같이 하고, 한겨레신문과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 3. 대통령의 솔선수범

한겨레신문은 대통령의 솔선수범 사항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깊은 불신감을 가지고 있고, 종교이던 이념이던 편향성으로 일관하는 이상 어떠한 솔선수범도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경우는 국민통합의 계기로 솔선수범 사항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선일보의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이 오일쇼크가 왔을 때 보여준 솔선수범을 이명박 대통령도 보여주면 국가적 위기들을 극복할 것이라는 제안을 한다(7월 7일자). 자기희생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면 카리스마적 리더십은 저절로 생겨나고, 그에 따

라 건전한 보수주의의 가치를 걸고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라는 충고이다. 이 충고는 그다지 듣기 거북한 충고는 아닐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젊은 시절의 이미지와도 연결되고 자세나 태도의 변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한 걸음 더 나간다. “대통령 재산 환원으로 국민 통합 계기 만들자(12월 11일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의 조언에 비해 더욱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는 제안이다. 두 신문이 이명박 대통령의 솔선수범을 통한 국민 통합을 제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알 수 있는 것은, 두 신문이 한겨레신문과는 달리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는 갖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 더 힘든 제안을 한 중앙일보의 경우, 그 신뢰도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뢰도는 중앙일보가 이념성에 집착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에 대해 신뢰하기 때문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신뢰는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후보를 중도 실용주의로 인식하고 지지를 보낸 3-4대 유권자들의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sup>6)</sup>

#### 4. 인사

인사와 관련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리더십과 팔로어십’간의 관계를 논하는 사설들 중, 3개 신문의 입장의 차이가 가장 적은 두 부분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인사의 문제점이 이념적 차이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지나친 엽관제’로서 누가 봐도 잘못된 인사가 명백하다는 점에서이다. 조선일보의 표현들을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이든 조심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라도 국민의 마음을 얻어가도 모자랄 때에 이런 탐욕스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7월 23일자),” “실정(失政) 저질렀다 자르더니 대사 자리 선물 하나(8월 5일자),” “청와대 자해식 인사 언제까지 계속 하려나(8월 7일자),”

6) 강원택, “386세대는 어디로 갔나?: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의 이념과 세대,” 김민전 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3』 (동아시아연구원, 2009)

“대통령 눈에는 양씨가 건축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보일지 모르지만, 국민은 건설 비리라는 불안하고 위험한 전력을 가진 측근으로 보고 있다(12월 11일자)” 등이 주목할 만하다. 중앙일보의 경우는 “비리 판치는 공기업, 코드 인사로 개혁할 수 있는가(7월 25일자),” “대통령은 ‘강부자·고소영’에 이어 원칙 없는 회전문·보은 인사로 내달리는가(8월 6일자),” “이건 공기업 ‘선진화’가 아니라 ‘사유화’다(8월 7일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그는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개혁 공천’ 대상으로 낙천한 인물이다. 개혁 대상에게 몇 달도 안 돼 개혁을 맡긴 꼴이니 공기업 선진화가 빈말로 들릴 수밖에 없다(7월 13일자),” “아무리 ‘낙하산’이라도 능력과 전문성은 봐야 하는데, 그런 최소한의 원칙마저 무시하고 있다(10월 3일자),” “실력이 모자라거나 정책 실패로 물러난 인사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자리로 영전하는 게 이 정부 인사의 특징 중 하나다(11월 4일),” “이 대통령은 공무원 무능을 질타하기 전에, 공무원을 제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앉히는 인사를 먼저 해야 한다(12월 17일)”라고 비판하고 있다.

인사와 관련하여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 인사청문회 없이 이루어진 장관 임명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흥미롭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8월 6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들 3명의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 국회가 원(院) 구성을 놓고 밀고 당기기를 하다가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았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냥 장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이 있으므로 대통령의 장관 임명이 법률에 어긋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정치 현실로 보면 ‘청문회도 거치지 않았다’는 꼬리표를 단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제대로 일을 하긴 어렵다. 국회와 국민 앞에서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받지 못한 장관의 권위도 허약할 수밖에 없다(8월 6일자)”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겨레신문의 경우도 “현 시점에서 이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한 건 단순히 법적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그토록 비판했던 ‘독선적 국정 운영’의 부활과 다를 바 없다(8월 6일)”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두 신문의 뉘앙스가 전혀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조선일보의 뉘앙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 방식이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였던 반면에, 한겨레신문은 계속되고 있는 독선적 국정운영의 한 예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개선할 여지를 남겨 놓지만, 한겨레신문은 구제불능이라는 입장이다. 중앙일보는 비판을 하면서도 해결의 실마리를 다른 각도에서 찾고 있다. “민심의 눈높이에 맞추려면 대통령은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 권력을 나눠야 한다. 총리에게 내각 통할의 실질 권한을 주어야 한다(7월 7일자)”고 주장하였다. 계속 언급해 온 바와 같이 대통령 리더십의 문제를 개인의 자질 문제로 보지 말고 시스템의 문제로 보자는 입장이다.

## 5. 야당의 팔로어십

한겨레신문은 야당의 팔로어십을 문제 삼지 않는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 운영에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정치적 반대자의 목소리를 듣기 보다는 침묵하고 있는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이니, 리더와 보조를 맞출 능력이 인정될 때 요구되는 야당의 팔로어십을 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에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협조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파트너로서의 참여가 아니라 의무로서의 협조를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정주도권의 일부를 공유하며 공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위기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며 무조건 협조하라고 종용하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야당의 지지율이 국난(國難)을 방불케 하는 경제 위기 속에서 ‘친이

(親李) ‘친박(親朴)’ ‘반이반박(半李半朴)’ ‘주이야박(晝李夜朴)’등등 조폭(組暴) 세계에서나 들을 수 있는 말로 국민 속을 썩이는 여당 지지율만도 못한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다(11월 28일자),” 또는 “국민의 뜻을 바로 읽지 못하고 정권을 잃게 만들었던 정책을 되살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만년 야당의 길로 가자는 말이나 한가지다(11월 28일)”라고 하거나, 심지어는 “뿌리뽑아야 할 것은 눈치만 보는 머슴 버릇과 무책임 체질(7월 7일)”이라고 표현하면서 야당을 채찍질 한다. 중앙일보는 조선일보 보다는 부드러운 태도를 보인다. 일단 9월 9일에 있었던 국민과의 대화를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TV 토크쇼에서 야당에게 반론권을 주자는 주장(9월 8일자)을 함으로써 야당이 파트너로서 참여해야 한다는 뉘앙스를 주고 나서, “이명박 정부는 합법적으로 탄생했으며, 이번 정기국회는 국정철학을 펼치는 첫 무대다. 민주당은 새 정부에 기회를 주어야 한다(11월 11일)”라며 야당이 보여야 할 파트너십에 대해 제안을 하고 있다.

## 6. 야당 외의 팔로어의 자세

야당 이외에 팔로어라 할 수 있는 그룹이나 집단에 대해 팔로어십에 대해 제시하는 사실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미 거론한 바 있지만, 이것은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리더십의 유형이 카리스마적 리더십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7월 10일 시도했던 ‘대통령 불신임안 표결 추진’에 대해 맹렬한 비난을 퍼붓는다. 그러면서 국민의 공복(公僕)인 공무원은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에게 충성할 의무를 지녔다는 것을 강조한다. ‘공복(公僕)’이라든지, ‘충성’이라는 개념이 사용된 것을 볼 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갖고 있는 팔로어십의 핵심은 ‘복종’이라 할 수 있다.

한겨레신문은 정반대의 입장을 보인다. “검찰로서는 누구 눈치도 보지 말

고 철저히 사건을 파헤치는 게 오히려 이명박 정권을 돕는 길이다(8월 3일),”라고 한 사설이나, “‘방송장악 쿠데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감사원(8월 5일)”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검찰이나 감사원이 집권자의 의사에만 충성하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을 때에도 한겨레의 입장이 고수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한겨레의 검찰과 감사원에 대한 비판은 타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검찰과 감사원은 정부 기관 중 정치적 독립성이 가장 강하게 요청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 7. 대통령에 대한 불신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경우는 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주로 거론되고 있다. 조선일보의 경우는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과 관련하여 선정한 7개 중 4개의 사설이 경제 위기와 관련된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는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의 언행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가벼운 말과 행동이 사태를 진정시키기는커녕 더 힘든 상황으로 몰아갔다(10월 9일자)”라고 했으며, 더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전면에서 서서 매일처럼 경제를 전망하고 다음날 증권시장과 외환시장에서 대통령 전망이 거꾸로 뒤집히는 실태가 빚어지고 있으니 경제위기 타개의 중심에 서야 할 대통령의 리더십이 갈수록 허망해지고 있는 것이다(10월 28일)”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중앙일보의 경우는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어 가는 중심에 있다는 점에서는 조선일보와 동일하지만, 그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시스템의 변화이다. 일단 경제 위기의 원인을 이명박 대통령의 경솔한 언행보다는 인사와 관련하여 진단하며 “시장은 팽개치고 시장에서 버림받은 기존 경제팀만 끌어안았다(7월 9일)”고 지적한다. 그리고 나서 시스템의 변화를 제안한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정책의 의사결정권을 넘겨받아 국민 앞

에 나서서 고통분담을 호소할 소신 있는 경제 수장의 역할이 필요하다(7월 4일)”라고 주장하며, “경제 수장에게 위기관리의 책임을 맡기고 대통령이 위기 수습을 독려한다면 정책 효과도 커지고 국민들에 대한 설득력도 높아질 것이다(10월 10일)”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는 영역을 경제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의 여러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불신의 원인으로 말 바꾸기, 편향성, 그리고 도덕성 상실 등을 들고 있다. 말 바꾸기와 관련하여서는 7월 11일자 사설 “고개 숙일 땐 언제고 벌써 촛불시위를 폼하 하나”에서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하였고, 편향성과 관련하여서는 “대통령이 중심을 잃고 특정 계층·특정 집단에 치우친 행동만 한다면, 다수 국민은 누굴 믿고 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헤쳐 나갈 생각을 할지 걱정스러울 뿐이다(11월 19일자)”라며 우려를 나타냈으며, 도덕성 상실과 관련하여서는 “정권 초기엔 그래도 도덕성과 원칙을 내세우며 권력 핵심부는 물론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도 나름으로 조심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에선 그마저도 허물어진 것 같다(8월 1일자)”라며 신랄히 비판하고 있다.

## 8. 대통령의 일관성 또는 추진력

한겨레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방향으로의 일관성과 추진력이 국가 위기를 초래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7월 27일자 사설인 “철학·전략·시스템 부재가 빚은 망신외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관행까지도 무시하는 대북 강경론이 국제적 망신을 가져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일관성 결여와 추진력 부족이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조선일보는 “공기업 개혁, ‘용 머리’는 어디 두고 ‘뺨 꼬리’만 내놓나”라는 제목의 8월 11일자 사설에서 정부가 발표한 “공기업 개혁 방안은 전반적으로 요란한 겉포장에 비



해 알맹이가 별로 없다”고 평가한 뒤, “이러다간 공기업 민영화와 공기업 선진화가 한꺼번에 물 건너가고, 이 정권엔 선거용으로 국민에게 헛공약(公約)을 팔아먹었다는 욕밖에 돌아가지 않을지 모른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중앙일보도 “대못 뽑지 못한 지방균형발전 정책”이란 제목의 7월 22일자 사설에서 정부가 제시한 ‘지역발전 정책’이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한 뒤, “매사를 이런 식으로 눈치 보기에 급급해서는 곤란하지 않은가”라고 비판하였다.

## 9. 실용외교의 허와 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외교 노선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리더십과 팔로어십’ 간의 관계를 논하는 사설들 중, 3개 신문의 입장의 차이가 가장 적은 두 부분 중 다른 하나이다. 조선일보는 “한국 대통령은 제안하고 중국과 일본은 응답 없고”라는 10월 9일자 사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한·중·일 금융정상회담 제안에 대해 일본과 중국이 응답을 하지 않았던 사건의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응변식 외교였다고 비판하였다. 중앙일보는 “임기응변·무원칙이 ‘실용외교’인가”라는 7월 16일자 사설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일, 대미, 대중 외교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이유를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는 국제정치의 원칙’을 소홀히 한” 실수라고 진단하고 있다. 한겨레신문 역시, “후안무치한 일본의 교과서 왜곡”이라는 7월 14일자 사설에서, “역사문제를 외교현안으로 삼지 않겠다는 지난 정부의 선의를 일본이 어떻게 짓밟았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이 정부는 또다시 ‘과거를 묻지 않고 미래로’를 외치며 일본에 머리를 조아렸”고 그에 대한 대답은 “일본이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으리라”는 소식이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외교를 비판하였다.

## 10. 대통령과 미디어의 관계

대통령과 미디어의 관계와 관련하여 선정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사실들은 모두 KBS 정연주 사장과 관련된 것이다. 양 신문 모두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정연주 사장의 KBS를 좌편향적 코드 방송이라 정의하는데, 양 신문은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KBS에는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인사가 사장으로 임명되어야 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한 인사를 성공적으로 해 낸다면 그의 리더십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한겨레신문은 정연주 사장의 해임은 “입법 취지를 무시한 채 대통령 등 행정부가 정치적 편익에 맞춘 자의적 법해석으로 법에 없는 권한을 함부로 행사”한 것이라 비판하였고(8월 11일자), 또한 “KBS를 ‘이명박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7월 18일자 사설에서는 정연주 사장의 해임은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 장악의 신호탄이라 주장하였다. 즉, 이명박 대통령이 미디어를 장악하여 자신의 리더십을 조작하려는 작업의 첫 단계라고 비판하였다. 대통령과 미디어의 관계와 관련된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리더십과 팔로어십’간의 관계를 논하는 사실들 중, 보수 성향의 신문과 진보 성향의 신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영역이다.

## V. 끝맺는 말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언론이 사실을 통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어떠한 전략적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현재 한국 사회의 언론은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의제를 제시하고 특정의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고자 하는 적극적인 비평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한 언론의 프레이밍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대통령의 리더십 평가에 있어서는 특히

‘과거’에 대한 기억의 회생과 ‘리더와 팔로어의 관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진다.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한국 언론의 리더십 평가이다. 조선, 중앙, 한겨레 등 3개 신문을 선정하여 그 사설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인 사설들은 2008년 7월 1일 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각 신문에 실린 것들로 이명박 대통령의 초기 업무 수행에 대한 것들이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호감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조선일보가 가장 높고, 중앙일보가 중간, 그리고 한겨레신문이 가장 낮게 관찰되었다. 보수와 진보 모두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과거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보수성향의 신문과 진보성향의 신문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가 요구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은 과거의 권위주의 권력자들의 리더십과는 어느 정도 차별성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조선일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보수 언론을 비롯한 보수 세력과는 상호 이해관계를 보장해 주는 거래적 리더십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과거’에 대한 기억의 회상을 통해 특정의 이념성이나 정책지향성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특정 이념에 따른 카리스마적 국정운영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권력 집중에 의한 국정운영은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약화시킬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한겨레신문은 이명박 정부의 리더십을 과거 권위주의 권력자들이 사용하던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다를 바 없다고 규정짓는다.

‘리더십과 팔로어십’의 관계를 논하고 있는 사설들은 10개의 관련 사안을 선정하여 그에 따라 세분하였다. ① 대통령의 무능력 또는 무책임(국정운영과 국민통합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 평가) ② 리더십과 종교 ③ 대통령의 출선수범 ④ 인사 ⑤ 팔로어로서의 야당의 자세 ⑥ 야당 외의 팔로어의 자세 ⑦ 대통령에 대한 불신 ⑧ 대통령의 일관성 또는 추진력 ⑨ 실용외교의 허와 실 ⑩

대통령과 미디어의 관계 등이다. 선정된 각 신문의 사설들은 이 10개의 사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두드러진 특징은 3개 신문 모두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팔로어십과 연결시켜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사설 안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논한 경우는 ‘팔로어로서의 야당의 자세,’ ‘야당 외의 팔로어의 자세’로 분류될 수 있는 12개 (조선 5개, 중앙 5개, 한겨레 2개) 뿐이고, 이는 총 분석 사설 수 (127개)의 9%에 불과하다. 한국 사회가 아직도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리더십의 전형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진보성향의 신문이라 할 수 있는 한겨레신문이 팔로어십에 대한 논의를 보수성향의 신문들 보다 더 적게 하고 있는 상황은 흥미롭다.

그 외에 다른 특징들을 보면, 먼저 ‘대통령의 무능력 또는 무책임’과 관련하여 한겨레신문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 비해 두 배에 가까운 사설들을 싣고 있다. 이것은 진보성향의 신문이자 일종의 야당지로서 반대자의 입장에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현상은 아니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 중 보수 성향이던 진보 성향이던 불문하고 집중포화를 퍼붓는 사안이 ‘종교편향성’이다. 특히 조선일보의 경우는 그 비판의 강도나 빈도수에 있어서 다른 신문들의 두 배에 가깝다. ‘종교편향성’ 만큼이나 모든 신문이 유사한 입장에서 비판을 한 사안이 ‘인사’ 문제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는 보수와 진보 양 진영으로부터 비판받아왔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가 지나칠 정도로 ‘엽관제’의 성격을 강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도덕성 잣대를 들이대기도 전에 그 전문성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심각하게 이루어졌다. 임명된 이들의 이념성이나 정책지향성은 논란이 될 기회조차 없었다. 인사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었고,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당연하면서도 다시 본격적으로 재조명해야 할 사안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이 ‘리더십’과 ‘인사’의 관계이다.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리더 개인의 자질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리더의 ‘리더십’은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의 문제가 그것이다.

<접수일: 2009. 9. 18, 심사일: 2009. 10. 12, 게재확정일: 2009. 11. 8>

초 록

##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미디어의 전략적 프레이밍 사례 연구

- ‘과거’의 회상과 ‘리더-팔로어 관계’를 중심으로 -

차 동 욱

이 연구는 한국의 언론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전략적 프레이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 분석을 수행한다. 현재 한국 사회의 언론은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 의제를 제시하고 특정의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고자 하는 적극적인 비평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한 언론의 대통령의 리더십 평가에 있어서, 이 연구에서는 특히 ‘과거’에 대한 기억의 회상과 ‘리더와 팔로어의 관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진다.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한국 언론의 리더십 평가이다. 기간은 2008년 7월 1일 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이명박 대통령의 초기 업무 수행에 대한 것들이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보수와 진보 모두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된 과거로 회귀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안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과거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보수성향의 신문과 진보성향의 신문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리더십과 팔로어십의 관계에 있어서는, 보수와 진보를 불문하고 리더십의 평가를 오직 리더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도 동반자형(fellow)나 서번트형(servant) 보다는 카리스마형 리더가 지배적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대통령, 리더십, 언론, 프레이밍, 전략

Abstract

## Media's Strategic Framing of Presidential Leadership

Cha, Dongwook

This research performs a case study on how strategically Korean media frames presidential leadership. Currently, Korean media is not a simple messenger. It performs the role of an active critic in offering national agendas and leading national policies in a particular direction. This study specifically concentrates on Korean media's reflection on the past and definition of the relation between leaders and followers. This essay analyzes Korean media's assessment of President Lee Myung-Bak's leadership from July 1st to December 31st of 2008. This paper observes the paradox of Korean media. While Korean media warns President Lee's actions allegedly restoring the past authoritarian way of governing, it ignores the role of followers and demands a charismatic role of a leader.

Key Words: President, Leadership, Media, Framing, Strategy

### 참고문헌

- 강원택. 2009. “386세대는 어디로 갔나?: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의 이념과 세대.” 김민전 외. 『변화하는 한국 유권자3』 동아아시아연구원.
- 김현주. 1999. “대통령후보에 대한 이미지 형성과 커뮤니케이션.” 『한국방송학보』 12호.
- 이준웅. 1999. “후보이미지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사회인지론적 설명.” 『한국언론학회보』 43권 2호.
- 차동욱. 2009. “대통령의 리더십 이미지 관리와 언론의 이슈 견인: 방법론 고찰,” 『정치와 평론』 제4집.
- 최영재. 2006. “이미지, 이슈, 정치적 관리, 민주주의.” 오태섭 외. 『현대 정치 커뮤니케이션 연구』 서울: 나남.
- 최진. 2007. 『대통령리더십 연구』 서울: 법문사.
- 함성득. 2007. “대통령 리더십 외국 사례와 바람직한 한국 대통령 리더십 모색: 정치적 다수와 대통령을 찾아서.” 한국정치학회 · 관훈클럽 편. 『한국의 대통령 리더십과 국가발전』 서울: 인간사랑.
- 말린 캐로셀리, 조경순 역. 2004. 『리더십의 기술』 지식공작소.
-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조중빈 역. 2006.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지식의 날개.
- Barber, James. 1992. *The Presidential Character: Predicting Performance in the White House*. 4th ed.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 Bass, Bernard. 1997. “Does the Transactional Transformational Leadership Paradigm Transcend Organizational and National Boundaries?” *American Psychologist*, Vol 52.
- Edelstein, Alex. 1993. “Thinking About the Criterion Variable in Agenda-Setting Research” *Journal of Communication*. 43. 85-99.



- Kark, Ronit, Boas Shamir and Gilad Chen. 2003. "The Two Face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Empowerment and Dependenc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22.
- Offerman, Lynn, John Kennedy and Phillip Wirtz. 1994. "Implicit Leadership Theories: Content, Structure, and Generalizability." *Leadership Quarterly*. vol 5.
- Shamir, Boas, Robert House, and Michael Arthur. 1993. "The Motivational Effects of Charismatic Leadership: A Self-Concept Based Theory." *Organizational Science*. Vol 4.
- Wyer, S. T. et al. 1991. "Image, issues, and ideology: The processing of information about political candid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33-545